

녹색기후기금(GCF), 마라케시 기후변화 총회에서 제1회 주제별 기구 연례회의 개최

2016.11.10, 모로코 마라케시 - 녹색기후기금(GCF) 공동의장이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(UNFCCC) 제22차 당사국총회에서 11월 9일 제1회 주제별 연례회의를 개최했다. 회의에는 적응위원회(Adaptation Committee), 최빈개도국전문가그룹(Least Developed Countries Expert Group), 기술집행위원회(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), 기후기술센터&네트워크(Climate Technology Center and Network),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 집행위원회(Executive Committee of the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on Loss and Damage), 재정상설위원회(Standing Committee on Finance), 부속기구 공동의장(Co-Chairs of the Subsidiary Bodies), 녹색기후기금 이사회(Board of the Green Climate Fund)가 참석했다.

이번 회의는 GCF 이사회가 UNFCCC 산하 주제별 기구와 GCF 간의 관계 및 협업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니셔티브 중 하나이다. 회의 참가자들은 각 기구의 작업 영역을 소개하고 향후 협업 추진의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.

회의 결과는 다음해 당사국총회에서 보고서로 제출된다.

다음은 이번 연례회의에서 강조된 주요 논점이다.

- 주제별 기구 공동의장은 GCF 이사회가 이번 이니셔티브를 통해 관계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한다.
- 참가자들은 개도국 및 지역사회에 대한 모든 분야와 규모에 걸친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조강화 방법에 대한 생각을 교환했으며, 그러한 방법의 예로는 정보 및 교훈 공유, 회의 참여, 공동 워크숍, 공동 전문성 활용 등이 포함된다.
- 주제별 기구 공동의장은 이와 같은 대화가 현재의 노력을 보완하며 각 기구 간 공생 관계를 촉진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.